영암읍 이장단협 '태양광 발전기금' 사적유용 의혹

9000만원 중 2800만원 지출협의 총회 결산보고·회계 장부 없어 "덕진면 등 기금 수령 지역 추적 철저한 사법조사·환원 조치를"

가칭 '영암읍 이장단 발전협의회'가 영암군 금정면 태양광 기업체에서 준 지역발전기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적립금 중 일부를 증빙서류조차 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민들은 감시·감독에 충실해야 할 영암군사회단체의 무책임성과 부실행태를 질책하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일 영암읍 이장단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영암태양광발전㈜이 금정면 태양광 사업과 관련,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태양광설치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금정면 문체위원장 영암읍 이장단 발전 협의회, 덕진면 문체위원장이 각각 맡아 반대 투쟁을 펼쳤다.

영암태양광발전㈜은 '태양광설치반대투쟁위원회' 측에 매년 지역발전기금을 기탁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며 발전소가 들어선 금정면 주민들에겐 연간 2억원과 영암읍에 3000만원, 덕진면에 3000만원 등 2020년부터 20년간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까지 3년간 영암읍 이장단발전협의회에 적립된 9000만원은 가칭 '영암읍 이장단 발전협의회장' 개인통장으로 지급됐다.

적립액 중 일부를 이장단의 제주여행 경비(400만원)로 전용했으며 2020년~2022년 지출한 2800만원도 일체 관련 증빙서류 없이 이장단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돈의 출처가 기부형식이다 보니 지난 3년간 '영암읍 이장단발전협의회'에 대한 감사·회계관리 없이 지출 됐으며 주민들 역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영암읍사무소가 지난 달 18일 영암읍 사회단체장들을 소집해 '영암읍 이장단 발전협의회 태양광 발전기금 2020~2022년 관리 및 결산 현황'을 논의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제출한 지난 3년간 태양광 발전기금 관리 내역에 따르면 총수입 9000만원 중 2800만원을 지출했지만 마을총회 결산보고, 회계 장부, 근거 서류조차 없었다.

2800만원도 적십자 회비지출, 코로나 마스크구입 등에 1100만원 지출, 일부 이장단 제주여행 경비에 400만원 지출했다는 내역만 알려졌을 뿐 나머지 1700만원에 대한 근거인 회계 장부 및 지출 증빙서류조차 없었다. 잔고 6200만원은 지난 1월부터 '영암읍 문체위'에서 태양광 기금 관리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영암읍 사회단체에 대한 군민들의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18일 영암읍사무소에서 연 긴급회의에서 주민들은 영암읍 이장단발전협의회의 각종 비리의혹을 감싸고 돈다며 영암읍 사회단체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지출근거인 회계장부, 지출증빙서류 등 감사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에서다.

영암읍 이장단 발전협의회 감사를 지냈고 현재 총무를 맡고 있는 임모 씨는 "애초 그 돈은 마을 전체를 위해 쓰라는 돈이 아니라 당시 영암태양광발전과 협의를 한 이장단 발전협의회 9명 위원들에게 내려진 돈이다. 즉 이장단 복지를 위해 쓰라고 준 돈"이라고 말했다.

읍민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법절차와 사용액 환원조치를 촉구했다. 비슷한 사례가 지역에 많아 태양광 발전기금을 매년 수령한 영암읍, 금정면, 덕진면에 대해 발전기금 사용 자료와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영암읍 한 주민은 "그동안 마을총회 결산보고 당시 태양광 발전기금 자체가 없었고 이장단 '쌈지돈'으로 전락한 태양광 발전기금 대해서도 들어본 바가 없다"며 "사법기관은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사적 전용 금액은 환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영광군, 진화대원 선발 배치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오는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고 2일 밝혔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선발해 본청에 2개 조 10명, 11개 읍·면 상황실에 42명을 배치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각 마을을 순찰해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불 예방 및 초동대응을 위해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13대, 산불 신고 단말기(GPS) 52대, 산불 진화 차량 12대,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1대 등을 활용한다.

산불 예방 캠페인을 통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소각에 대응할 방침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해남군, 월 10만원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대출금 5000만원이상 전세 또는 60만원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이하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기준 311만원)가 대상이다.

3월 중 우선순위 선발기준(가구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14명을 최종 확정해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납부사항을 확인 후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분기별 지급한다.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인구정책과(061-530-5063)로 문의.

해남=전연수 기자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이벤트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은 오는 5일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독도 등대·해양탐사 구축함·해저탐사 잠수함 만들기 체험, 정답을 찾아라, 해적마술단 네모세모 매직쇼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과학관 1층 '바다상상홀'에서는 'the North Pole, 북극이야기'란 주제로 특별기획전을 개최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원천인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입장료는 무료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과수화상병 확산방지 예찰 강화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은 배·사과 과원의 겨울 전정작업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점기간을 4월말일까지 운영하고 궤양 제거와 농작업 관리 등 적극적인 예방·예찰 활동을 당부했다.

배·사과에서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화상병은 지난해 전국 19개 시군 245건 108.2ha에서 발생해 2021년에 비해 60% 감소했으나 2개 시군에서 신규발생돼 지역간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화상병은 곤충이나 빗물, 바람, 작업자, 묘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염되는데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어 청결한 과원관리, 작업자·작업도구의 주기적인 소독과 건전한 묘목사용, 궤양 제거 등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오는 9일 도내 배·사과 재배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협의회를 갖고 화상병 대응체계 정비와 사전예방 및 도·시군 간 신속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농업기술원 박관수 기술보급과장은 "화상병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궤양 제거와 작업자 관리(교육·소독), 자가 예찰 강화 등 예방관리가 중요하며,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1833-8572로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지리산대화엄사, 연기암 일원 환경정화활동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대화엄사가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주관으로 지난 1일 제1회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 연기암 어머니의 길 숲과 계곡에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다. 구례군 제공

순천농협, 농촌사랑기금 타 농협 지급논란에 "문제 안돼"

전국 최대규모 단위농협인 순천농협이 '농촌사랑기금'을 4차례에 걸쳐 외지 농협에 지원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사회 보고, 감사실 검토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지급했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촌사랑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농촌사랑기금' 중 6700만 원을 경북 김천농협과 영암 낭주농협 등 4차례에 걸쳐 지원했다.

순천농협이 기금을 지원한 영암 낭주농협은 도농 상생과 농협 간 균형발전이 목적이었으며 김천 농소농협은 대출 부실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원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순천 지역 농민을 위해 써야 할 기금을 2020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위해 선심성으로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내부 결재 과정 및 감사실의 감사 여부를 지적했다.

농업인들도 순천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외지 농협을 지원할 수 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파장이 커지자 순천농협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고소·고발을 위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순천농협은 농촌사랑기금은 농협의 각종 카드 사용액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농촌사랑운동, 농촌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범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순천 농민만을 위한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농축협 본점에서 농촌 사랑 기금 지원 계획을 자체 수립 후 집행할 수 있다.

순천농협 관계자는 "협동조합 간 협동이라는 대원칙 아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매 결연 농협에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농협 자체 예산이 아닌 카드사용으로 적립된 기금으로 지원전 이사회 보고 및 이사 현지 방문, 감사실 검토 후 결재 등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농업인 조합원을 위해 작년 교육지원사업비 87억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함평군 출향인들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행렬

이상일 용인시장·노영대 변호사

함평군에 전국 각지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법무법인 법가 대표인 노영대 변호사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노 변호사는 답례품으로 받은 함평 나비쌀(150만원 상당)을 재기부하며 고향사랑을 실천했다.

함평군 월야면 출신인 노 변호사는 광주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광주언론인권센터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법가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일 함평읍 출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사비로 마련한 100만원을 함평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기탁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생태계교란생물 12종 퇴치 영산강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광주·전남·제주 지역에서 생태계교란생물 12종에 대해 퇴치 사업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환경청은 지난해 미국가재 1만1438마리, 큰입배스·블루길 16.5톤, 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 514마리, 식물 18.4톤 등을 수거했다.

특히 전남 나주·함평 지역에 많이 사는 미국가재는 지난 2021년(3903마리)과 비교해 3배 이상 포획했다.

식물은 장록·담양습지 등 국가보호지역 내에서 제거했다.

'생태계교란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해 개체 수 조절과 제거가 필요한 생물이다. 환경청이 지난해 퇴치한 생태계교란생물로는 △동물(미국가재·큰입배스·블루길·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 △식물(환삼덩굴·양미역취·서양금혼초·가시박·돼지풀·애기수영·미국쑥부쟁이)이었다. 조진용 기자